

집적경제 요소로서 장소기반 신용이점: 서울 도심부 중부시장을 사례로*

김용창** · 이후빈*** · 권규상****

Place-based Credit Advantages as a Factor of Agglomeration Economies: A Case Study of the 'Jungbu' Traditional Market in downtown Seoul*

Yongchang Kim** · Hoobin Lee*** · Kyusang Kwon****

요약 : 1980년대 말 이래로 진화주의 경제지리학, 신경제지리학을 비롯하여 집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에 비해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규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 도심부의 건어물 전문시장인 중부시장을 사례로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밝힌다. 도심부 중부시장이라는 특정 장소에 기반 한 거래관계와 이 장소를 벗어난 거래관계의 보완적 이해를 통해 장소기반 신용체계를 규명한다. 특정 장소나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장소기반 신용체계와 이점은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외부효과로 기능하면서 집적경제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며, 유통체계의 변화에 따른 장소기반 신용체계 이점의 변화는 집적생애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진화주의적 집적이론의 사례가 될 수 있음도 제시한다.

주요어 : 집적, 장소기반 신용체계, 신경제지리학, 진화주의 경제지리학, 외부성, 도심부

Abstract : From the late 1980s onwards, there has been a renewed and increased interest in economic agglomeration with the progress of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and new economic geography. Although there are many overlapping interests and theoretical specifications, empirical researches focused on the micro foundations that underlie the benefits of agglomeration remained relatively lack. This paper gets to the bottom of the micro foundations through case study of the 'Jungbu' traditional market highly specialized for dried fishes and seafoods trading in downtown Seoul. By analysing the interplay between trading networks based on place and external networks beyond the place, the paper shows place-based credit system as a micro foundation of agglomeration economies. This type of place-based credit advantages functions the spatially bounded externalities attracting firms and sources of agglomeration economies, and changes of place-based credit advantages according to changes of distribution channel give evolutionary agglomeration theory the proper case for analysing agglomeration life cycle.

Key Words : agglomeration, place-based credit system, New Economic Geography,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externality, downtown

I. 머리말

1980년대 말 이래 경제지리학, 신경제지리학을 비롯하여 집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

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지구적 차원의 공간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지역의 특징과 성격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

* 본 논문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생활문화 자료조사 연구용역(『동대문시장: 광장, 중부, 방산』 2012)의 일환으로 수행한 조사의 원자료를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 주저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yc@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Ph.D Candidate, Dep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hnam007@snu.ac.kr)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Ph.D Candidate, Dep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kls1104@snu.ac.kr)

심의 재개는 주류 경제학이 경쟁적 균형이론에 치중하면서 공간불균등 발전, 구체적으로는 공간적 집적 문제에 대해 불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 기인한 바도 크다(Burger *et al.*, 2009).

관심의 증가만큼 집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적 논의에 비해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규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황이다. 이른바 블랙박스에 해당한다(Durantón and Puga, 2003; Ottaviano, 2011; Boschma and Frenken, 2011). 본 논문에서는 집적경제 원천의 하나로서 장소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는 신용체계를 분석한다. 특정 장소나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용이점은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외부효과로 기능하면서 집적경제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어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도심부의 ‘중부시장’을 사례로 상인네트워크에 기반한 장소기반의 비공식 신용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집적경제 이점의 작동체계와 블랙박스의 일면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2012년 4월부터 9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적 자료 구축을 위해서 시장 관계자 94명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중부시장 구역의 점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내 토지이용과 건어물의 품목별 집적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최근 들어 신경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 NEG)이 집적개념을 중시함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지만 주지하다시피 지리학 및 도시경제 논의에서 집적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말 이래 다양한 접근방법이 등장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이론적 연원은 Marshall(1890)의 이른바 삼위일체(trinity)의 집적경제 이점으로부터 기업들이 얻는 수확체증이다. Marshall은 국지적인 숙련노동력 전문

화, 국지적인 공급업자 연계(매수자-공급업자 네트워크), 국지적인 지식파급이 산업부문 내에서 장소구체적인 경쟁우위(이점)를 창출 및 지속시킨다고 보았다(Potter and Watts, 2011). 신경경제지리학이나 전통 경제지리학, 진화주의 경제지리학 모두 외부성 또는 파급효과(spillover) 개념에 기초하여 집적경제 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편익에 대한 지불이 없으면서 특정 장소(지역)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 ‘공간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작동하는 외부성’(spatially bounded externalities), 즉 장소 또는 지역 기반의 외부성 개념에 기초하는 것이다(Burger *et al.*, 2009; Raspe and van Oort, 2011).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은 다양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Chamberlin(1933)의 독점적 경쟁모델에 이론적 기원을 둔다. 이를 토대로 Dixit and Stiglitz(1977)가 발전시킨 경쟁과 생산물 다양성 모델, 이를 처음으로 공간에 적용시킨 Fujita(1988)의 논의를 통해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 진전은 Krugman이 독점적 경쟁모형 틀을 기반으로 2 지역 일반균형모델을 개발하면서 크게 발전하였고, 이 모델은 지역 간 운송비 변화가 도시집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해 주었다. Krugman은 공간경제적 집적과 지역불균등의 미시경제적 기초를 닦았으며, 경제활동의 입지에 대한 일반균형모형을 정립하였다. 그가 1991년 논문에서 자신의 논문이 비록 중심-주변부 쟁점에 대한 아주 단순한 모형이지만 지역경제학과 경제지리학 연구의 부활에 자극제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처럼 이후 ‘신경제지리학’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였다(Krugman, 1991; Tabuchi, 1998; Behrens and Robert-Nicoud, 2011; Thisse, 2011; 김정훈, 2009). 이 접근은 주류 경제학이 도외시 했던 입지와 공간변수를 내재화시킨 것이다. 즉 모든 지점에서 모든 재화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자급자족의 뒤뜰 자본주의’(backyard capitalism) 틀을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신경경제지리학은 지역 간 거래와 집적을 설명할 때, 불완전 경쟁과 규모의 경제(수확체증,

increasing returns)를 도입하였고, 수학적 정식화를 통해 공간경제학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집적을 유도하는 동태적 과정과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Krugman, 1979; Starrett, 1978; Fujita and Thisse 2002; Ottaviano, *et al.*, 2002; Burger *et al.*, 2009; Garretsen and Martin, 2010).

그러나 집적에 대한 신경경제지리학 접근이 공간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의 일반균형 모델을 받아들이고, 이질적 행위 주체와 비경제적 요소를 소홀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지리학적 접근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신경경제지리학 접근에 대해 지리를 고정된 것, 고도로 추상적인 기하학적 공간으로 취급하고, 역사를 장소나 지역기반의 실제 역사가 아닌 일반균형 모델의 해(解, solution space)를 찾기 위한 ‘균형의 이동’ 정도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Garretsen and Martin, 2010). 특히 공간적 외부성의 구체적 작동메커니즘은 블랙박스로 남겨 놓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Krugman 스스로 ‘골치 아픈’(messy) 요소들로 보아 사회학의 영역이라고 말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은 Krugman 분석틀의 구속을 벗어나지 않고는 혁신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으며, 다양한 방향으로 신경경제 지리학 접근을 확장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Krugman, 1995; Martin and Sunley, 1996; McCann and van Oort 2009; Thissen *et al.*, 2009; Behrens and Robert-Nicoud, 2011).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진화주의 경제지리학 접근은 집적경제 분석에서 신경경제지리학이 주목하지 않는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 최근 들어 신경경제지리학에서도 2지역 모델의 비현실성을 벗어나 다지역시스템과 지역들의 실제적인 지리적 양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기업과 사람의 이질성 사이 상호작용이 집적경제의 존재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면서 미래의 연구방향은 보다 미시적 이질성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Ottaviano and Thisse, 2003; Ottaviano, 2011).

경제지리학에서 진화주의 접근은 공간과 시간상의 구체적인 과정들에 경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 이론을 추구한다. 신경경제지리학 접근과 달리 진화주의적 집적이론(Evolutionary Agglomeration Theory; EAT)은 시공간의 맥락적 관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와 집적을 경로의존적인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서 이해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경로의존성 연구는 때로는 연구의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집적의 경로의존을 비균일적 과정으로서 지역 고유의 역사에 의존하는 비가역적 자기강화 메커니즘으로 이해한다. 즉 공간적 진화와 집적을 국지화된 계보적 구조로 파악하며, 장소 의존적 과정(place-dependent)으로 본다. 아울러 집적 또는 클러스터가 기업분리시설의 진화적 과정(snowball 과정)에서 출현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국지화 경제의 부재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고 본다(박삼욱, 2008; 정준호, 2008; Martin and Sunley, 2010; Boschma and Frenken, 2011; Potter and Watts, 2011; Henning *et al.*, 2013).

최근 진화주의 관점의 연구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적경제 또는 집적 외부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들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국지화경제, 산업생애주기, 지역단위가 아닌 기업차원의 외부성, 집적원천의 통로, 지역경제 발전에서 회복성(resilience)과 적응적 주기론, 집적경제의 생애주기적 진화 등을 새로운 연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Christopherson *et al.*, 2010; Simmie and Martin, 2010; Boschma and Frenken, 2011; Potter and Watts, 2011). 이 가운데 혁신활동의 지리적 집중과 관련한 집적경제 논의에서 오랫동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전문화 외부성과 다양화 외부성이다. 전자는 Marshall에서 기원한 이른바 MAR(Marshall-Arrow-Romer) 모델로서 특정지역에 산업집중이 일어나고, 지리적 산업전문화를 통해 금전 거래 없이 혁신 잠재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Jacobs(1969)에서 기원하는 것으로서 다양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지역의 심층적 노동분업(sheer number)

과 산업다양성에 기초한 외부경제, 즉 지역경제의 내재적 역량이 커진다고 본다(Beaudry and Schiffauerova, 2009; Brown and Rigby, 2013).

한편, 집적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적 논의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집중을 전제로 하는 단일 지점 또는 장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경제활동의 지배적인 현상인 네트워크 관점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으로서 장소기반 집적의 생산성 편익과 네트워크 편익 사이의 상보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공간상에 분산된 경제 주체들 사이 네트워크가 단일 지점에서 행위주체의 집적을 대체할 수 있고, 장소기반 집적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같은 이점을 낳는다고 본다. 물리적 공간(집적)과 네트워크가 동시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행동)공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구양미, 2008; Johansson and Quigley, 2004; Capello, 2009).

이처럼 주류 경제학, 네트워크 사회학, 경영관리학, 진화주의 경제지리학 접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적경제에 대한 연구문헌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집적과 기업성과 및 지역경제 발전 사이 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있다. 집적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이론적 진전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작동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많지 않은 편이다(Burger *et al.*, 2009). 이러한 차원에서 Duranton and Puga(2003)는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불가분성(indivisibilities)의 공유, 수급연결성(matching), 지식학습효과(learning)로 구분하면서 도시 집적경제의 다양한 원천을 비교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식파급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통로(채널)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집적경제(외부성)의 원천을 규명하려고 한다(Boschma and Frenken, 2011).

하지만 Duranton and Puga(2003)의 분석들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Marshall(1890)이 제시한 삼위일체의 집적경제 이점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원료, 노동, 지식이 특정 장소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공유, 연결, 학습개념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집적경제의 원천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지만, 집적경제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여전히 원료, 노동, 지식으로 한정되어 있다. 경제활동에서의 자본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서 자본조달의 메커니즘을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로 분석하려는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관계로서 자본조달을 인식다면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관계에서만 작동하는 장소기반 신용체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고, 신용체계의 작동에서 장소 또는 집적경제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집적경제에 대한 연구로는 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집적경제의 원천과 범위를 밝히려는 실증연구들이 많이 이뤄졌다. (이번송 · 장수명, 2001; 민경휘 · 김영수, 2003; 정준호 등, 2004; 문미성 등, 2007). 이런 연구들은 입지변수의 공간적 차이를 활용해서 특정 산업이 모여 있는 집적지역을 파악하고, 요인변수와 입지변수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개별 집적지의 특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정준호 등(2004)과 문미성 등(2007)은 자기완결적인 공간개념을 상정하는 기존 분석들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고려한 공간 계량경제학을 활용하였다. 또한 산업별로 세분하여 동적외부효과가 도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한 임창호 · 김정섭(2003) 연구가 있으며, 손정렬(2013)은 도시차원의 공간집적 패턴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신용에 대한 지역관점의 분석은 주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 특정 지역의 금융기관은 지역 외부의 차입자보다는 지역 내부의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 내부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공급받기가 더 쉽다는 논리이다(Moore and Hill, 1982, 박원석, 1997; 전창완, 2000).¹⁾ 하지만 이와 같은 주

장은 전국 단위 금융기관이 증가함에 따라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Petersen and Rajan, 2002; 구재운·문호성, 2004). 반면, 전국 단위 금융기관의 과점체제에서도 신용심사기준의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전창완, 2002), 산업구조와 인구구성 등의 지역경제변수(손욱·박장호, 2011) 등에 의해서 신용의 지리적 차별성이 발생할 수는 있음을 밝히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박원석(1997)의 실증 연구는 전국 단위 금융기관이 발달한 경우에는 자금흐름이 단절될 정도의 완전 고립된 지역금융시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III. 서울 도심부 중부시장의 토지이용, 거래네트워크와 단기신용

1. 업종별·품목별 토지이용

중부시장은 서울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심부 재래시장이다. 1959년 2월 29일 현 위치인 오장동 일대에 개장하였고, 주변에 있던 다양한 업종의 상인들이 중부시장으로 집결하면서 종합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²⁾ 1959년 동대문 ‘라사부(羅紗部)’가 이전하면서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입지하였고, 1960년대 중반 인근 광장시장의 건어물 상인이 옮겨오고, 1968년 남대문 시장 화재를 계기로 남대문 시장의 대형 건어물 도매상들이 중부시장으로 이전하면서 1960년 후반 이후 지금까지 건어물 전문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³⁾ 중부시장은 김, 미역, 멸치, 오징어, 조기, 명태, 노가리 등의 생물을 말린 대

부분의 건어물들을 판매하며, 생물을 형태 그대로 단순히 건조시킨 ‘건태’뿐만 아니라 건태를 잘게 찢은 ‘건채’, 반 건조 상태로 수분을 일정하게 함유하고 있는 ‘건작’도 판매하는 말 그대로의 건어물 전문시장이다(김용창 등, 2012).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중부시장은 을지로 4가, 마른대로 등 대로변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모양의 16,327㎡ 대지이며, 미점유 점포수를 제외하고 현재 건어물 점포 331개, 젓갈 점포 20개, 농축산물 점포 65개, 창고 124개 등 총 1,423개 점포가 입주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사각형 모양의 대지 내 토지이용을 보면, 대로변을 따라서는 가구관련 업종과 인쇄·종이관련 업종, 인테리어와 건축관련 업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 분포지역 안쪽에는 건어물, 젓갈, 농축산물 및 창고업종이 밀집되어 있다. 이 밀집지역이 중부 건어물시장에 해당한다(그림 1 참조). 조사대상 구역의 총 건물은 297동이며, 이 가운데 1층(113동)과 2층(104동) 건물이 217동으로 73.1%를 차지한다. 중부시장의 주요품목인 건어물, 젓갈, 농축산물의 입지는 건어물 1곳과 농축산물은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1층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한 광장시장, 방산시장의 도심부 시장과는 달리 중부시장에는 1층에 많은 창고가 분포한다. 건어물 도매상들이 냉동보관 하는 창고는 124개로 1층과 2층에 전체의 79.0%인 98개 창고가 분포하고 있다. 집적경제 유형에 따라 상이한 토지이용 양태를 보겠지만 본 사례의 토지이용 구성과 패턴은 도심부 집적경제가 작동하는 물리적 토대의 한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4장에서 분석하는 장소기반 신용체

표 1. 중부시장의 업종분포(2012년 9월 현재)

업종	점포수	업종	점포수	업종	점포수
건어물	331개	인테리어/건축/조명	120개	기계/가전제품	21개
젓갈	20개	의류/부자재	25개	조각/목금형/재단	12개
농축산물	65개	창고	124개	기타	197개
음식/음료/식료품	120개	가구제조/판매	67개	점유(분류미상)	146개
인쇄/종이/포장	155개	광고/기획	20개	합계	1,42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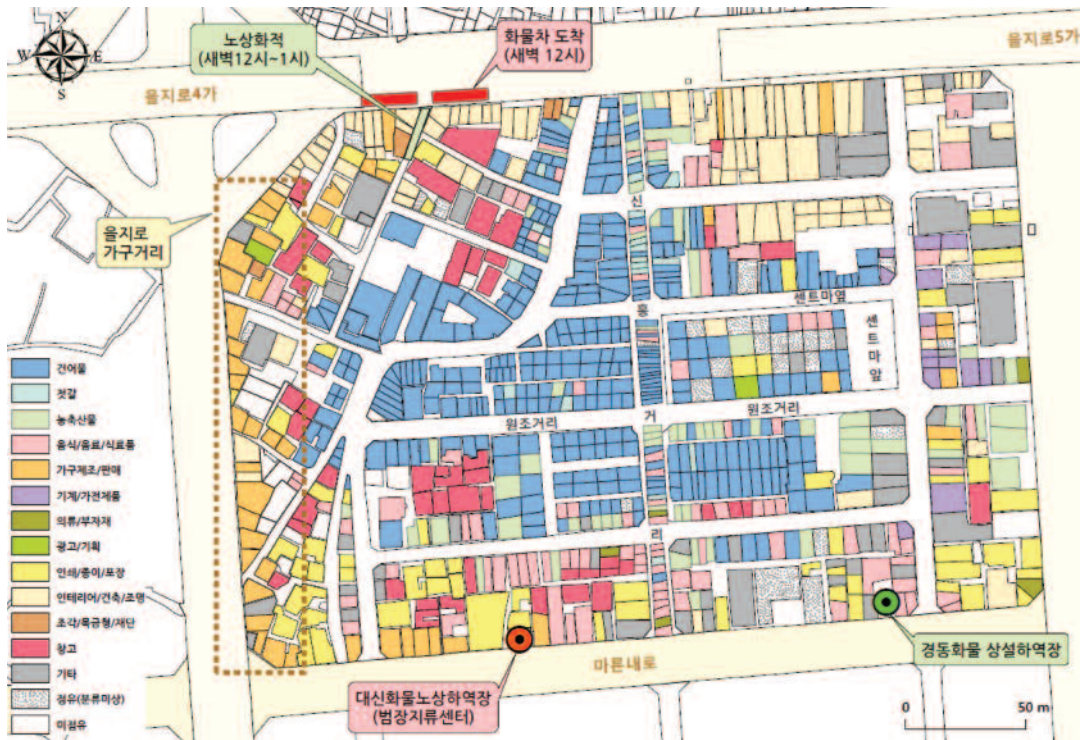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 중부시장 일대의 토지이용 분포

계에서 시·공간적 범위의 물리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어물 점포 밀집 지역의 중심에는 일렬로 나열해 있는 노점상 거리가 있다. 이 노점상 거리를 중부시장에서는 ‘신흥거리’라고 부르며, 신흥거리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입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다. 일반적인 노점은 소규모 자본의 간이영업 점포라고 할 수 있지만 신흥거리의 노점상들은 다르다. 건어물 전문 도매시장이 도소매 시장 성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중심부의 구매동선을 이용할 필요성 때문에 노점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대부분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규모를 갖췄다. 중부시장의 건작과 찻갈 점포 대부분은 이 신흥거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중부시장의 출발장소인 ‘원조거리’는 서울중부시장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물들

의 앞거리를 말하며, 1970년대는 가장 붐비는 거리였지만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변하면서 신흥거리에 구역 내 입지우위를 내주었다.

원조거리 위쪽과 신흥거리 왼쪽 편에는 멀치점포들이 밀집해 있으며,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위탁상회 주관으로 열리는 멀치 새벽경매 시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원조거리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쪽에는 김을 판매하는 해태점포 밀집지역이 있다. 이 밀집지역은 주로 김 원도매 점포가 입지해 있는 관계로 낮 시간에는 점포를 닫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에 영업하는 신흥거리와 대비를 이룬다. 도매상과 소매상이 일종의 시간지리를 달리하여 입지갈등을 해소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 거래관계와 도매업의 자본회수 및 단기신용 필요성

중부시장의 건어물 도매상은 역할에 따라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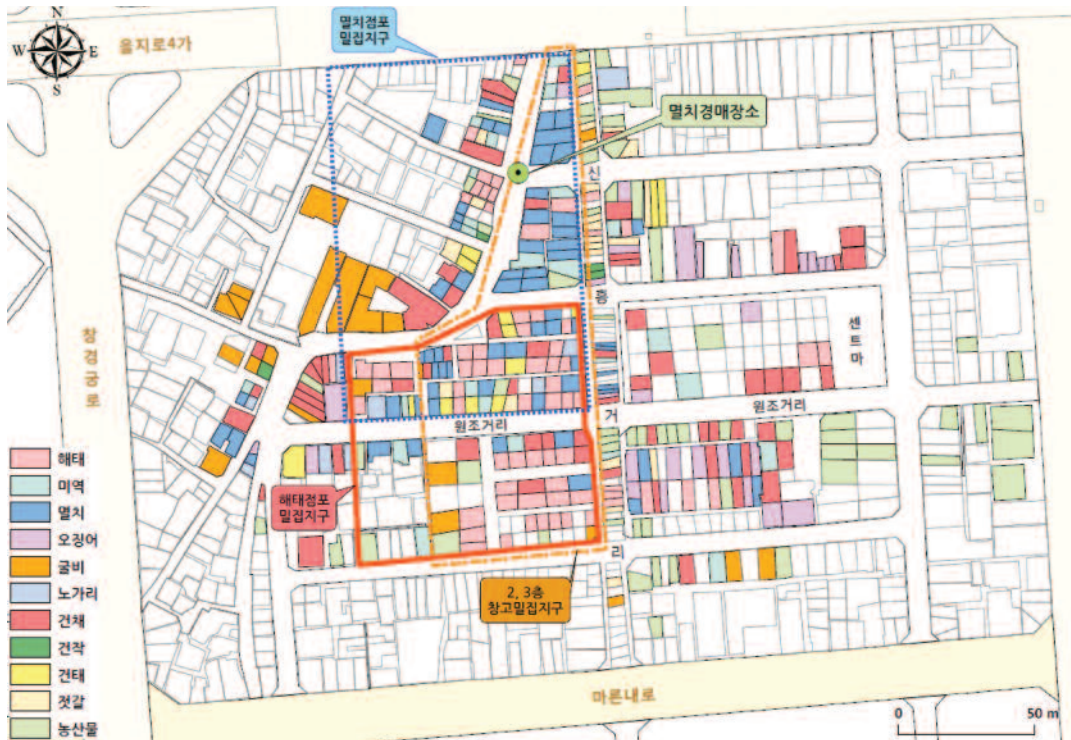


그림 2. 중부시장의 품목별 분포

원도매상과 중도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도매상은 공급업자에게 상품을 직접 받아서 중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도매상을, 중도매상은 원도매상에게 상품을 받아서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도매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산지 직거래와 유통망 다변화에 의해서 이와 같은 구분이 과거처럼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다. 원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중도매상이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 도매시장인 중부시장에서는 원도매-중도매의 기존 유통구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건어물 도매의 거래관계는 공간적 측면을 갖는 상품의 유통(물류)과 시간적 측면을 갖는 화폐의 유통(매출과 매입대금 지급)으로 구성된다. 먼저 물류로서 상품유통은 공간적 연계와 통합을 필요로 한다. 즉 상품을 주고받는 공급업자와 소매업자가 서로 상이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공간적 괴리를 매개하는 역할을 도매상이 수행한다. 중

부시장으로 건어물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은 건어물이라는 상품생산의 특성상 자연조건과 가공조건 등의 입지특성에 따라 아주 다양한 입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부시장의 경우 도매상들은 지방의 가공공장, 산지 중간상인, 저렴한 중국산 건어물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건어물을 공급받는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공급받는 건어물은 정기화물을 통해 중부시장으로 운송된다. 중부시장으로 향하는 건어물의 물류는 규모가 크고 일정하며, 상설 하역장을 운영하는 ‘경동화물’과 노상 하역장을 이용하는 ‘대신화물’이 남해안과 동해안의 건어물 주요 집산지들을 거쳐 새벽 1시쯤 중부시장에 도착하는 정기화물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1 참조).⁴⁾

“중부시장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화물차들이 따로 있어.(건어물)공장들이 주로 해안가를 따라서 있거든. 그럼 (정기 화물회사들이) 공장들에 전화를 다 돌려서, 중부시장으로 갈 물건이 있다고 하면(해

안선을 따라 올라오면서 걷어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와. (이런 정기화물로는) 경동화물이 있고, 대신화물도 있어.”[60대 남성 오징어 원도매상]

새벽 3시쯤 원도매상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중도매상이 원도매상의 점포로 와서 물건을 직접 보면서 구매한다. 특정 원도매상과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중도매상은 직접 방문 없이 전화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방문 또는 전화로 주문을 접수하면 원도매상 직원이 각각의 중도매상 점포로 물건을 배달한다. 멀치 도매상의 경우 중부시장 상인연합회 멀치부 소속 상인 81명 중 10명이 원도매상이며, 집합판매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품목의 원도매상과 판매방식이 다르다. 이들은 각자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대신에 멀치상점이 밀집해 있는 멀치거리에 상품을 박스채로 쌓아두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한꺼번에 판매를 한다(그림 2 참조).⁵⁾

중도매상은 원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다음 아침 6시쯤 영업을 시작한다. 중도매상의 주요 고객은 수도권 일대 전통시장의 소매상들이며, 그날 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로 오전 일찍 도매시장을 찾는다. 구매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소매상 본인이 직접 운반하지만 구매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택배, 용달, 오토바이를 이용하며, 이런 운송수단들은 대부분

‘센트마’ 건물 주변에 집결해 있다(그림 1 참조).⁶⁾

이상과 같은 상품유통 이면의 과정이 화폐유통이며, 대금결제는 시간적 지연을 포함할 수 있기에 시간적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다. 상품유통의 반대급부인 대금결제가 항상 상품유통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래주체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특정 행위주체가 상품유통과 대금결제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지연을 허용할 수 있다. 다양한 차원의 거래주체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도매상은 상품유통에 투하한 자신의 자본을 회수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상품 매입과 매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 도매상의 자본은 빠르게 회수되지만, 실제의 매입과 매출에서는 시차가 발생해서 재고자산이 쌓인다. 그리고 상품유통에서는 현금결제뿐만 아니라 외상결제가 존재하므로 자본회수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품유통 양쪽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을 고려해야 한다. Richards and Laughlin (1980)이 고안한 현금전환주기(cash conversion cycle)⁷⁾을 사용하면 상품유통과정에서 도매상의 자본이 상품 또는 채권의 형태로 잠겨 있는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도매업은 소매업에 비해서 자본회수가 더 오래 걸리는, 즉 자본이 상품 또는 채권의 형태로 더 오래도록 잠겨있는 업종이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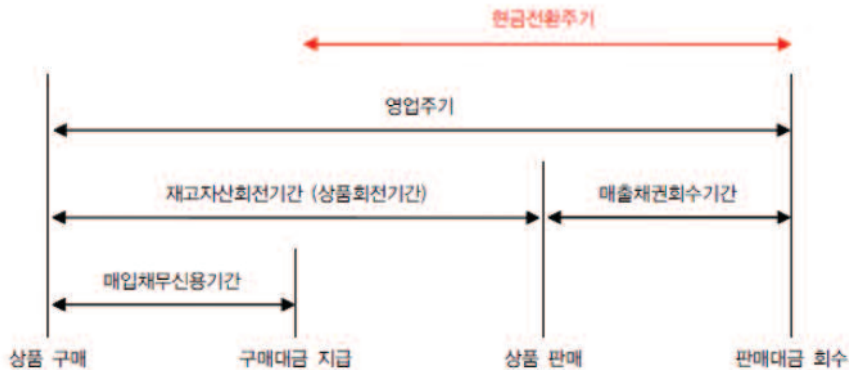


그림 3. 도매업의 현금흐름 시간선

출처: 신민식 등(2009)에서 연구자 수정

표 2. 2011년 도매업과 소매업의 (상품) 현금전환주기

구분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구분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상품회전기간	20.38일	24.63일	매입채무	38.79%	29.74%
매출채권회수기간	44.51일	15.66일	단기차입금	31.47%	21.88%
매입채무신용기간	31.71일	31.09일	유동성 장기부채	2.27%	10.14%
(상품) 영업주기	64.89일	40.29일	기타유동부채	27.48%	38.24%
(상품) 현금전환주기	33.18일	9.20일			

자료: 한국은행(2012)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리나라 도매업의 (상품)현금주기⁸⁾는 소매업보다 약 24일이 길다. 도매상의 경우 자신이 중개한 상품을 현금화하는데 소매상보다 약 24일 더 걸린다는 의미이다.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상품을 유통시켜야 하는 상품유통업자가 자본회수의 시간적인 공백을 극복하는 방법은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투자밖에 없다. 결국 도매상은 소매상에 비해서 늦어진 현금전환주기만큼 더 많은 자본을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하나의 방편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이 월등히 낮은 도매상이 자기자본만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자를 위해 단기신용을 이용하는 것이다.⁹⁾ 도매상은 상품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채를 사용해야 하며, (상품)현금전환주기가 33일인 것을 감안하면 상환기간이 긴 비유동부채(장기부채)보다는 유동부채를 선호하게 된다.¹⁰⁾ 실제로 도매업의 유동부채비율은 176.19%로 산업전체 89.51%, 제조업 76.85%, 소매업 67.05%에 훨씬 높은 편이다(한국은행, 2012). 도매업의 유동부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이다.¹¹⁾

IV. 중부시장의 장소기반 신용체계

1. 대금결제의 시간구조

중부시장에서 건어물 공급업자와 원도매상 사이의 대금결제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급

업자는 중부시장의 특정 원도매상을 지정하여 특정 가격에 위탁판매를 의뢰하며, 가격과 위탁수수료가 정해지면 상품을 서울 중부시장으로 배송한다. 원도매상은 공급업자가 원하는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다음 자신의 몫으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급업자에게 송금한다. 시세변동으로 인해서 원도매상이 공급업자가 의뢰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조정을 하거나 원도매상의 창고에 보관하기도 한다.

“위탁상회라고 아냐? 산지에서 물건을 보내와요. 물건을 팔아주십시오 하고, 그날 시세가 1마리에 만원이예요, 그럼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위탁수수료를 5%로 책정을 하죠. 만 원짜리 5%로 하면 500원이 우리 것이죠. 9500원을 산지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운임도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러다보니, 장사가 참 재미있죠. 우리는 손해 날 일이 없는 거야…… 그 당시에는 냉동시설이 없어서, 산지에서는 다 올려 보내고, 우리가 또 그만큼 팔았어.” [50대 남성 건채 원도매상]

원도매상과 중도매상 사이의 대금결제는 ‘ 만나질 외상거래 후 수금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새벽에 원도매상과 중도매상 사이 외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중도매상 점포로 상품배송이 끝난 후 오전 6시 쯤 계산서를 팩스로 보내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부시장 내의 중도매상 점포를 돌면서 수금한다. 중도매상은 새벽에 원도매상에게서 외상으로 수령한 상품을 아침에 소매상에게 판매한 다음, 원도매상에게 해당 대금을 지불한다. 중부시장 내 수금을 마무리한 원도매상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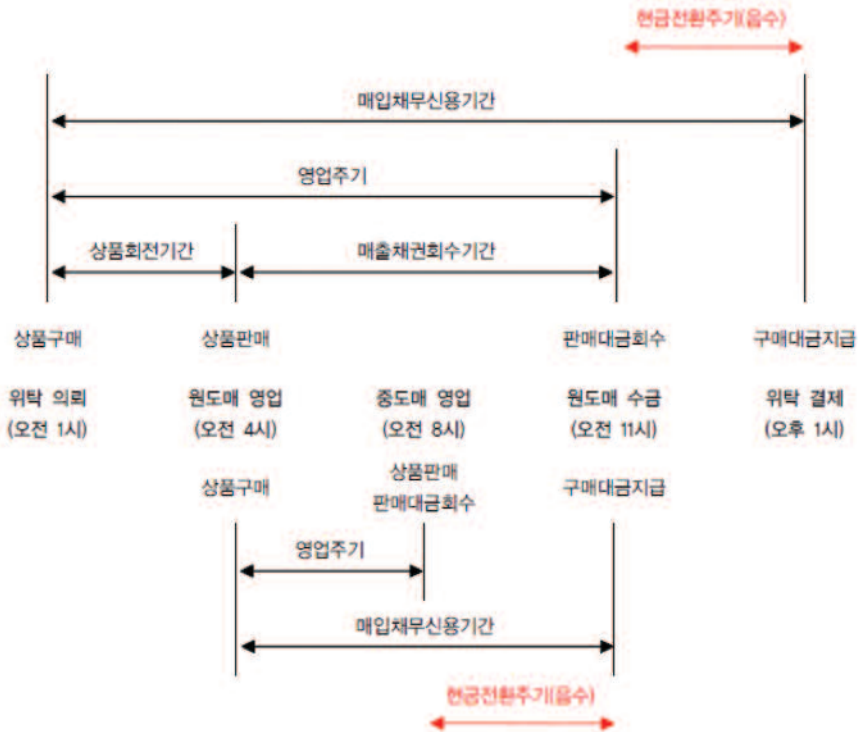


그림 4. 중부시장 원도매상과 중도매상의 현금전환주기

관계에 기초한 ‘장소기반 신용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이 지역 상인과 유통체계에서 고유하게 발생한 ‘내부 신용’을 외부효과로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기반 신용체계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내부 신용이라는 외부성(externality)으로서 집적경제 이점의 하나의 원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원도매와 중도매는 현금전환주기가 ‘음수’로 나타난다.¹²⁾ 즉, 상품유통을 위해서 자본이 상품 또는 채권으로 잠겨있는 기간인 영업주기가 타인자본을 빌려서 사용하는 매입채무 신용기간보다 시간이 짧다. 앞의 그림 2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도매상의 경우와는 반대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경우는 【영업주기 > 매입채무신용기간 → 현금전환주기+】이지만 중부시장의 경우는 【영업주기 < 매입채무신용기간 → 현금전환주기-】로 나타난다. 이는 상품유통과정에 원도매상과 중도매상의 자본이 전혀 투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업자가 중부시장 도매상에게 허용하는 신뢰에 바탕을 둔 매입채무신용기간을 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투자 없이 이 시장의 도매상은 공급업자의 상품유통에 대해 소매상의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부시장의 장소기반 신용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현금의 형태로 받는 외부 신용이 아니라 거래관계 내부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부 신용이며, 이자지급이 필요한 외부 신용과 달리 이자지급이 필요 없는 내부 신용이다.

이러한 원도매상과 중도매상의 내부 신용은 중부시장에서 입지한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장소기반’ 외부효과이다. 공급업자가 중부시장의 원도매상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하는 것은 이 시장이 수도권 건어물 유통망의 결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급업자는 대규모 물량을 빠른 시간에 처리하여 자신의 자본회전을 높이고, 투자자본을 빨리 회수하고자 한다. 정

기화물을 통해 운송되는 수많은 건어물 상품들을 거의 12시간 만에 처리하는 중부시장의 원도매상·중도매상의 집적과 거래네트워크 시스템이 이러한 공급업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그 대가로서 이 지역에 내부 신용을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시스템이 집적과 거래네트워크 시스템을 다시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산지에서 올라오면 우리(원도매상)가 가게(중도매상)별로 짝 분배해주는 거야. 중부시장에 하루에 한 2,000~3,000박스씩 들어오거든. 우리가 여기(중부시장)에 다 푸니까, 시장을 짝 돌면서 수급을 하지.” [60대 남성 해태 원도매상]

“우리가 분배하는 것은 전국 파워야. 말하자면 중부시장에서는 전에는 위탁판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리를 많이 하지…… 중부시장에는 기리로 올라오지만 여기서 이제 주로 경동시장이라든가 영등포시장 등등 각 거기다가 물건을 분배를 해주지.” [70대 남성 노가리 원도매상]

그리고 위탁계약을 통해 내부 신용을 획득한 원도매상은 중도매상에게 외상(신뢰)으로 상품을 거래한다. 원도매상은 공급업자와 거래에서 자신의 자본을 전혀 투하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매상에게 신용을 제공하기가 용이하다. 동시에 외상매출 회수에 일정한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급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만¹³⁾ 중도매상에게 신용을 제공하며, 중부시장에 함께 입지하도록 유인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중도매상이 향유하는 신용은 약 7시간의 매입채무신용기간을 가진 단기 신용으로 원도매상이 걸어서 2시간 내외에서 수급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제한된다.

“우리는 큰 도매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접 못 받는 경우도 있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거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큰 상회(위탁상회)한테 다시 받아야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다 받을 수 없잖아. 공장이 어디 있는지, 루트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상회 가서 물건도 받고, 외상도 깔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50대 남성 건작 중도매상]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생산자한테 직접 물건을 사다가 장사를 하지.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산지에서 못 사니까 여기서(중부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이런 사람들(원도매상)은 좀 밀어주니까. ‘그래. 팔아서 돈 줘.’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중도매사)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지.”

[60대 남성 굴비 중도매상]

그렇기 때문에 장소기반 신용체계의 작동은 중부시장의 건어물 집적경제 시스템과 상호 강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장소기반 신용을 누리기 위해서 개별 상인들은 중부시장에 입지하며, 단기 신용이 필요한 도매업에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중부시장의 내부 신용은 중요한 유인요인이면서 중부시장 집적경제 이점의 한 요소를 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다수의 도매상들이 집적한 중부시장은 대규모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므로 건어물 유통망 속에서 결정로 기능하며, 전국 각지의 공급업자들은 자본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망의 결정인 중부시장에 위탁을 의뢰한다. 공급업자가 대금결제의 시간적 지연을 허용하는 위탁거래는 중부시장의 원도매상과 중도매상에게 장소기반 신용이점을 또 다시 제공하므로, 장소기반 신용이점에 의한 개별 상인들의 집적과 도매상 집적에 따른 유통망 결정 기능은 서로 역할을 유기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3. 유통체계의 변화와 ‘기리’ 방식¹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소매업은 영세한 형태의 개인경영에서 자본력을 갖춘 기업경영 방식으로 구조적 전환을 빠르게 경험하고 있다.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형 소매업체들이 점포 대형화를 추구하고, 기존의 소규모 개인점포 위주의 유통체계가 쇠퇴하면서 중부시장의 중도매상 영업과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화된 소매기업들은 별도의 유통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부시장 도매상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소매상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중도매상은 원도매상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수금을 하지 못한 원도매상은 당연히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지 못하는 악순환 관계가 만들어진다.

반면에 도매유통망의 다변화로 공급업자는 중부시장 이외의 대안적 유통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소매업 구조변화와 도매 유통체계의 변화는 전국 각지의 공급업자와 중부시장 원도매상 사이에 거래관계의 역학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거래관계로 ‘기리(きり)방식’을 낳았다. 중부시장 화폐유통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소매업 유통체계의 변화로 원도매상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급업자는 원도매상의 대금결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한 가격으로 직접 물건을 구입하기를 요구한다. 이처럼 원도매상이 공급업자의 상품을 구입하여 유통시키는 거래방식을 중부시장에서는 ‘기리’라고 부른다.

“여기가 장사가 좀 덜 되고 그런 것은 배송시스템의 변화 때문이에요. 예전 처음에 중부시장이 잘되었던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각 산지에서 모두 중부시장으로 모였다 다시 분산되어갔거든. 근데 배송시스템이 발전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표기도다 하잖아요. 바로 직거래 하죠. 현금 보낸다는데 공장은 솔깃하죠.” [50대 남성 견체 원도매상]

“위탁 보다는 이제 거의 기리로 잘라. IMF 이후에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수금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관계에서 신용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산지나 중매인이 기리를 원하게 되었어.” [60대 남성 노가리 원도매상]

원도매상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와 달리 자신의 자본을 상품유통과정에 직접 투하하는 기리방식은 위탁방식에 비해 불리한 거래조건이다. 상품유통과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내부 신용을 이용할 수 없고, 원도매상은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에 따른 가격변동의 위험을 모두 원도매상이 떠안게 된다. 이처럼 불리한 거래조건을 원도매상이 받아들인 이유는 유통체계의 변화이다. 중부시장

원도매상이 기리방식을 거부할 경우 공급업자는 서울 외곽의 공영시장, 지방 거점의 도매시장 등과 같은 다른 유통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유통망의 다변화로 중부시장의 유통망 장악력이 감소하면서 공급업자는 중부시장의 원도매상에게 다른 곳과 동일한 거래방식인 기리를 강요했다. 이처럼 중부시장이 다른 곳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즉 장소기반 신용이점이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중부시장 자체의 변화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위탁에서 기리로의 변화는 중부시장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인 장소기반 신용체계가 유통망의 결절로 기능하는 집적지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가 집적지역 자체의 변화가 아닌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기리방식의 출현은 역설적으로 중부시장이 누리려는 장소적 기반의 신용이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기리방식의 출현에 따른 집적이점의 변화는 외형적·물리적으로 집적형태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게 보여도 내용적으로는 집적경제가 진화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것처럼 집적경제의 블랙박스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지금은 (위탁이) 없어졌어요. 기리로 해요. (위탁이) 9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5년도에는 거의 다 없어진 이유가 산지에서 싫다. 우리(산지)도 이제 보관이 가능하다. 얼마까지 해주지 않으면 못 보낸다. 이제는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한 물량을 한번에) 막 안 밀어 보내도 되거든. 우리 창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안 하죠. 위탁에 가격이 이렇게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위탁으로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얼마까지 끊어 주십시오. 매일 결정이 되는 거죠. 얼마 얼마 해서. 이제 오늘 온 물건에 대해서 우리(원도매상)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제는 올라가면 끝. 우리가 다 팔든 못 팔든 그때그때 가격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50대 남성 견체 원도매상]

“옛날에는 산지에서 외상으로 많이 밀어줬어. 그

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우리가 현금을 많이 쥐야 해……옛날에는 (배송료를) 산지에서 다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죠. 그것도 무시 못해요. 한축 당 300원 정도 먹어버려요.” [60대 남성 오징어 원도매상]

註

V. 맺음말

1980년대 말 이래 진화주의 경제지리학, 신경계 지리학을 비롯하여 집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에 비해 집적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집적경제 원천의 하나로서 장소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는 신용체계 이점을 분석하였다. 서울 도심부의 건어물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중부시장을 사례로 상인네트워크를 통한 장소기반 비공식 신용이점의 규명을 통해, 특정 장소나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용이점이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외부효과로 기능하면서 집적경제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도매거래에서 내부 신용은 최근의 현상도 아니고, 건어물 도매거래에만 특수한 것은 아니지만 집적이점으로서 신용이점의 장소 기반성, 공간적 제한성을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집적경제 작동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집적이점은 상당부분 집적지역 외부에서 많은 네트워크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Burger *et al.*, 2009; Capello, 2009).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도심부 중부시장이라는 특정 장소기반의 내부 거래관계와 더불어 산지, 가공공장, 외국산지 등 원거리 거래네트워크에 기반한 집적경제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장소중심의 집적과 네트워크 집적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통체계의 변화에 따른 장소기반 신용체계 이점의 변화는 집적생애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진화주의적 집적이론(evolutionary agglomeration theory)의 사례 기반도 제공한다.

- 1) 박원석(1997)은 신용의 지역적 차별성이 발생하는 요인을 자금 공급과 수요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자금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이고, 자금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경제변수이다. 지역경제변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차이, 지역 경제주체의 성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매개변수이다. 전국의 대출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변수의 지역적 차이에 의해 신용의 지리적 차별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즉 대출 시장 내부의 작동기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용의 지리적 차별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신용배분과정에서 기제로 작동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신용의 지리적 차별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한다.
- 2) 1955년 9월 내부부 고시 제 244호로 오장동 일대가 새로운 시장부지로 지정되었고, 1957년 현대식 시장을 목표로 하는 서울중부시장 주식회사가 출범하며, 1959년 2월 29일 중부시장이 개장하였다.
- 3) 1960년대 후반 남대문 시장의 대형 건어물 도매상들이 이전하면서 중부시장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시장에서 건어물 도매로 특화된 전문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1968년 대화제로 인해서 남대문 시장의 중심부가 전소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서울시는 남대문 시장 전체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다.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계획은 강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대문 시장에 있는 약 20여명의 대형 건어물 도매상들 중에서 3~4명이 근처의 중부시장으로 이전했다. 이후 다른 대형 도매상들도 줄지어서 중부시장으로 이전하면서, 남대문 시장으로 대표되던 건어물 집산지의 명성을 중부시장이 차지하게 되었다. 중부시장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건어물 상권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남대문 시장의 군소 중간 도매상들도 중부시장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 4) 경동화물은 오장동 사거리 근처의 대로변에 서울 중구 오장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신화물은 상설 하역장을 운영하지 않고 새벽의 대로변을 임시 하역장으로 쓰고 있다. 마른내로의 대로변은 인적이 드문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대신화물의 노상 하역장으로 변한다. 하역 작업이 모두 끝나면 원도매 상점 직원 또는 전문 집꾼인 입고(入庫)가 핸드카(사람의 힘으로 끄는 바퀴가 2개 달린 손수레)를 이용해서 건어물 박스를 하역장에서 원도매 상점으로 운반한다. 멀치를 운반하는 화물차들은 마른내로가 아닌 을지로4가를 이용한다. 멀치경매장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을지로4가에 화물차를 정차하고 그 안쪽 도로에 노상으로 하역한다.
- 5) 멀치만 집합판매가 가능한 것은 거의 일 년 내내 꾸준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역, 다시마, 황태 등과 같이 한철에만 생산되는 품목에 비해서, 멀치는 철별 종류가 다양해서 연중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수 있다.
- 6) ‘센트라’ 건물은 비교적 최근에 신축한 대형 건물로 넓은 출입구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택배와 용달은 주로 건

- 물 앞에 있는 도로에 정착하고 있고, 오토바이는 건물 왼쪽에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에 일렬로 주차하고 있다.
- 7) 현금전환주기는 구매대금 지급시점(현금유출)부터 판매대금 회수시점(현금유입)까지를 가리키는데, 영업주에서 매입채무신용기간을 빼서 구한다. 영업주기는 상품 구매시점부터 판매대금 회수시점까지를 말하는데, 재고자산 회전기간과 매출채권회수기간의 합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민식 등(2009)을 참고할 수 있다.
 - 8) 상품유통업인 도매업과 소매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고 회전기간 대신에 상품회전기간을 사용했다. 참고로 도매업의 재고회전기간은 22.41일이고, 소매업의 재고회전기간은 27.44일이다.
 - 9) 도매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8.79%로 산업전체 39.57%, 제조업 47.80%, 소매업 49.13%에 비해서 월등히 낮고, 매출채권과 상품 비율의 합인 41.4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한국은행, 2012).
 - 10) 일반적으로 부채는 상환기간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가리킨다.
 - 11) Braudel(1986)의 구분에 따르면 매입채무는 내부 신용으로, 단기차입금은 외부 신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2) 위쪽은 원도매상의 현금흐름 시간선을, 아래쪽은 중도매상의 현금흐름 시간선을 나타낸다.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지역 내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위략 의뢰는 오전 1시, 원도매 영업은 오전 4시, 중도매 영업은 오전 8시, 원도매 수급은 오전 11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중도매는 상품 판매와 판매대금 회수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상품회전기간과 매출채권회수기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 13) 이와 같은 공간적 범위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부시장 내 건물 상점들의 분포가 바로 원도매상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2시간 내에 수급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이다.
 - 14) 현지조사에서는 ‘기리’(きり, 切り)방식의 어원을 상인들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일본어의 義理(義理)는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해야만 하는 계약 관계적 개념에 가까우며, 다양한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일본어의 切り(切り)는 경제적인 의미로 창산거래에서 수도(受渡) 기한을 의미한다. 수도는 어떤 물품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약속한 기일에 현물과 대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서 사용하는 기리는 후자의 뜻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文獻**
- 구양미, 2008, “경제지리학 네트워크 연구의 이론적 고찰: SNA와 ANT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0: 36-66.
- 구재운 · 문호성, 2004, “한국의 지역금융시장,” 경제분석, 10(1): 1-25.
- 김용창 · 권규상 · 이후빈, 2012, “개성이 뚜렷한 도심부 시장의 사회경제지리,” 동대문시장: 광장, 중부, 방산,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72-213.
- 김정훈, 2009, “유럽지역정책과 신지리경제학: Paul Krugman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며,” 재정포럼, 14(6): 6-23.
- 문미성 · 정준호 · 이성호, 2007, 수도권 산업집적 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민경휘 · 김영수, 2003, 지역별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 분석, 산업연구원.
- 박삼옥, 2008, “경제지리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신경제지리학,”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1): 8-23.
- 박원석, 1997, “한국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욱 · 박장호, 2011, “지역금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 29(3): 191-232.
- 손정렬, 2013, “한국 도시들의 공간집적 패턴에 대한 계량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8(1): 56-71.
- 신민식 · 김수은 · 김병수, 2009, “중소기업의 운전자본관리와 현금유동성간의 관계,” 금융공학연구, 8(2): 163-185.
- 이번송 · 장수명, 2001, “제조업체의 도시별 생산성 차이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49(3): 165-188.
- 임창호 · 김정섭, 2003, “산업집적의 외부효과가 도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계획학회지, 38(3): 187-201.
- 전창완, 2002, “신용할당과 지역금융,” 지역사회연구, 10(2): 39-63.
- 정준호, 2008, “공간문제에 대한 신경지리학의 해석: 그 논의와 비판적 이해,” 공간과 사회,

- 30: 5-35.
- 정준호 · 김선배 · 변창욱, 2004, 산업집적의 공간구조와 지역혁신 거버넌스,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2012, 2011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 Beaudry, C. and Schiffauerova, A. 2009. Who's right, Marshall or Jacobs? The localization versus urbanization debate, *Research Policy* 38(2): 318-337.
- Behrens, K. and Robert-Nicoud, F. 2011, Tempora mutantur: in search of a new testament for NEG,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2): 215-230.
- Boschma, R. and Frenken, K. 2011. The emerging empirics of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295-307.
- Braudel, F. 1986. *Civilisation Materielle, Economie et Capitallisme*. XV-XVIIIe, Armand Colin Editeur(주경철 역, 1996,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까치글방).
- Brown, W. M. and Rigby, D. L. 2013, Urban productivity: Who benefits from agglomeration economies?, Economic Analysis Research Paper Series 11F0027M No. 084, Statistics Canada, Minister of Industry.
- Burger, M. J. van Oort, F. Frenken, K. van der Knaap, B. 2009. Networks and economic agglomeration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100(2): 139-144.
- Capello, R. 2009. Indivisibilities, synergy and proximity: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agglomeration economie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100(2): 145-159.
- Chamberlin, E. 1933. *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ristopherson, S. Michie, J. and Tyler, P. 2010. Regional resilie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1): 3-10.
- Dixit, A. K. and Stiglitz, J. 1977.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7: 297-308.
- Duranton, G. and Puga, D. 2003. Micro-foundations of urban agglomeration economies, Working Paper 993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www.nber.org/papers/w9931>.
- Fujita, M. 1988. A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of spatial agglomeration: A differentiated product approach,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8: 87-124.
- Fujita, M. and Thisse, J. 2002. *Economics of Agglomeration: Cities, Industrial Location, and Regional Grow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retsen, H. and R. Martin. 2010. Rethinking (New) Economic Geography models: Taking geography and history more seriously, *Spatial Economic Analysis* 5(2): 127-160.
- Henning, M. Stam, E. and Wenting, R. 2013. Path dependence research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acophony or knowledge accumulation?, *Regional Studies*, 47. iFirst article: 1-16.
- Jacobs, J. 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Johansson, B. and Quigley, J. M. 2004. Agglomeration and networks in spatial economies, *Papers in Regional Science* 83(1): 1-13.

- Krugman, P. R. 1979.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 469-479.
- Krugman, P. R. 1991.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3): 483-499.
- Krugman, P. R. 1995. *Development, Geography and Economic Theory*, Cambridge MA: MIT Press.
-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London: Macmillan(백영현 역, 2010, 경제학원리 1, 한길사).
- Martin, R. and Sunley, P. 1996. Paul Krugman's geographical economics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theory: A critical assessment, *Economic Geography* 72(3): 260-293.
- Martin, R. and Sunley, P. 2010. The place of path dependence i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the economic landscape, in Boschma, R. and Martin. R.(eds), 2010, *Handbook of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Chichester: Edward Elgar. 62-92.
- McCann, P. and van Oort, F. G. 2009. Theories of agglomer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 historical review, in Capello, R. and Nijkamp, P.(eds.), *Handbook of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Theories*, Cheltenham: Edward Elgar. 19-32.
- Moore, C. L. and Hill J. M. 1982. International arbitrage and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2(4): 499-512.
- Ottaviano, G. I. P. and Thisse, J. 2003. Agglomeration and economic geography, CORE Discussion Papers 2003016, 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 Center for Operations Research and Econometrics(CORE).
- Ottaviano, G. I. P. 2011. 'New' new economic geography: firm heterogeneity and agglomera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2): 231-240.
- Ottaviano, G. I. P. Tabuchi, T. and Thisse, J. 2002. Agglomeration and trade revisited,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3(2): 409-436.
- Petersen, M. A. and Rajan, R. G. 2002. Does distance still matter?: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small business lending, *Journal of Finance* 57(6): 2533-2570.
- Potter, A. and Watts, H. D. 2011. Evolutionary agglomeration theory: increasing returns, diminishing returns, and the industry life cycle,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3): 417-455.
- Raspe, O. and van Oort, F. 2011, Growth of new firms and spatially bounded knowledge externalitie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6: 495-518.
- Richards, V. D. and Laghlin, E. L. 1980. A cash conversion cycle approach to liquidity analysis, *Financial Management* 9(1): 32-38.
- Simmiea, J. and Martin, R. 2010. The economic resilience of regions: towards an evolutionary approach,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3(1): 27-43.
- Starrett, D. 1978. Market allocations of location choice in a model with free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7(1): 21-37.
- Tabuchi, T. 1998. Urban agglomeration and dispersion: A synthesis of Alonso and Krugman, *Journal of Urban Economics* 44(3): 333-351.
- Thisse, J. 2011. Geographical economics: A

historical perspective, CORE discussion paper, Center for Operations Research and Econometrics, http://www.uclouvain.be/cps/ucl/doc/core/documents/coredp2011_12web.pdf

Thissen, M. Hilbers, H. and van de Coevering, P. 2009. The difference between bi-regional and full networks when studying agglomeration effect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100(2): 171-182.

접 수 2013년 04월 24일
최종수정 2013년 05월 20일
게재확정 2013년 06월 02일